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가족적응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ense of Pressure Shown from the Family Adjustment Experience of Mothers-in-Law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박병금*, 노필순**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Byung-Kum Park(bkpark@sdu.ac.kr)*, Pill-Soon Noh(nobbi@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 시어머니들과 가족들이 함께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5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의 경험은 7개의 범주와 31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경험의 7가지 범주는, '아들결혼에 대한 부담감', '마뜩잖은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서운한 며느리로 인한 부담감', '걱정스러운 아들내외와 사는 부담감', '외국인 며느리 맞이로 인한 부담감', '딸에게 기대는 사돈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국제결혼을 통해 낯선 사회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들이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가족적응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복지 실천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결혼이민여성 | 결혼이민여성의 시어머니 | 가족적응 | 부담감 | 현상학적 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explore the sense of pressure shown from the family adjustment experience according to mothers-in-law's perception an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research, 5 mothers-in-law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In addi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a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experience in mothers-in-law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identified as 31 themes and 7 categories. The 7 categories consisted of "The sense of pressure of son's marriage", "The sense of pressure of an unsatisfactory daughter-in-law", "The sense of pressure of unfair treatment by a daughter-in-law", "The sense of pressure of living with concerned son and his wife", "The sense of pressure of having a foreign daughter-in-law", "The sense of pressure of dependent daughter-in-law's parents", "The sense of pressure of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experience in mothers-in-law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And lastly, this results made suggestions for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m and their families.

■ keyword : | Phenomenological Study | Married Immigrant Women | Mother-in-law with Married Immigrant Woman | Family Adjustment |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28,325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결혼보다 한국남자와 외국인여자의 결혼이 약 2.6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역할, 정서, 기능 등의 내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하나의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한국문화적응이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14][15]. 최근 들어 그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들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시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시부모의 일상생활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족관계임이 나타나고 있다[7][27][36].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고부관계는 스트레스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시어머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 외국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사고방식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가족들의 노력과 친정엄마 같이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 중 시어머니의 전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애뜻한 마음을 경험하고 엄마처럼 느껴지면서 가족으로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9]. 윤명숙과 이해경[18]의 연구에서도 시어머니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의 처지에 대해 측은함을 느끼게 되고 친정엄마처럼 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시부모들과 외국출신 며느리들 사이에서 생성되는 갈등과 수용은 또 다른 가족문화 생성을 위한

창발적 통과의례라고 보기도 한다[6].

이와 같이 기존에 수행되어온 결혼이민여성가족에 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는 단지 다문화 가정의 가족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수적인 존재로 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과 학습 등에 국한되어 있어 서비스 영역에서도 역시 시어머니들의 욕구는 철저히 도외시되어져 왔다[28]. 배우자의 가정 내 역할수행정도과 시부모와의 친밀한 가족 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이고[16]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시어머니일 것이므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만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적응 과정의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지 탐색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경험을 부담감으로 정리하여 이해하였다. 심층적 탐색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이 이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 경험과 문화를 의미 있게 다루는데 적절하다. 양적 접근은 인간 행위 이면의 의미를 찾아내어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실재를 가정하고 외부적인 관점에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는 양적 연구들은 특정한 요인들의 영향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22].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내적 경험을 심도 있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현상학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의 기술을 분석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6]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 참여자들의 경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는 문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40].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가 가족적응과정에서 경험한 부담감이라는 현상에 대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서 자료를 얻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그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족 구성의 주체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 가족을 위한 정책과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현장에서 유용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1. 아들의 국제결혼 과정은 어떠한가?
2. 시어머니의 며느리와의 가족적응과정은 어떠한가?
3. 시어머니의 가족적응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부담감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검토

가족적응은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균형과 적합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가족 내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따라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8]. 가족이 역경 이전에는 문제를 예방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협동, 타협, 상호노력 등의 효과적 대처전략을 통하여 긍정적 적응을 성취하려는 것이다[21]. 건강한 가족에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발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해결하는가가 이슈가 된다고 했다[5]. 한편 가족과정은 가족이 변화와 지속을 위해 당면하는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

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 상호작용이다[20]. 따라서 가족적응 과정이란, '가족과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와 갈등 그리고 기회의 문제를 다루고 극복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0].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어려움, 가정폭력의 피해자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9][41]. 결혼이민여성의 시어머니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보고하고 있다[1][23][30]. 고부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의사소통의 어려움'[1][28][32]이나 시어머니들이 한국문화를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강력히 동화되도록 요구하고 있음[1][2][19][32]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관계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가족 구조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우위에 있고, 한국 동화요구와 출신문화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인정-적응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 상대가 대부분 시어머니[18]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선과 김계하[32]는 여성 노인이 많은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이 도시지역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시어머니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 내 돌봄의 문제와 수발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다[17][25].

시댁식구와의 관계는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15]. 남인숙과 안숙희[8]는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배우자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변수와 함께 가족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 모두 시부모와 동거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 결과를 보였다. 이외승[24]은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는 남자보다 여자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며느리와의 '동거'보다는 '비동거'시 시부모와의 갈등, 문화적 스트레스, 의사소통 스트레스, 부정적인 복지감 평균이 높게 나타나 아들내외와 '비동거'하는 시어머니들보다 '동거'를 하는 시어머니들은 더

긍정적 복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황정미 [34]의 연구에서 사회연결망 중 가족중심형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 주로 남편과 시어머니, 시부모님, 시누이와 상의한다고 응답했다. 구차순[2]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시댁시구들이 남편을 막아주고 결혼이민여성들을 감싸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아내, 며느리, 엄마 등의 다중 역할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중 역할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인 것이다[8].

한국인 며느리들은 부양스트레스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29], 외국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1].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노년의 삶이 길어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아감에 해가 되는 갈등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언어장벽에 의한 의사소통이라면 이러한 갈등은 다른 갈등에 비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족변화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응과 함께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붙이기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일반적 가족단위의 하나로서 관심을 가질 때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가 가족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과정과 이후 가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겪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심층면접을 통한 Colaizzi[34]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현상학이란 주체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으로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31]으로 하며,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39]. 따라서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이들 시어머니들이 가족적응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부담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구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인 시어머니들은 가족적응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다양한 심리적 갈등 등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심리적 현상들을 여러 차례 추출하고 주제묶음을 한 후 ‘부담감’으로 범주화하여 시어머니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Colaizzi[3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이러한 전후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13]. 첫째,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낸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2. 연구 참여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아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 한 시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method) 중 기준표집을 하였다. 충북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연구 참여의 의사가 있는 총 5명의 시어머니들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외국인며느리를 맞이하여 아들내외가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현재결혼생활

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로 제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들[1][2]의 가족적응의 과정을 볼 때, 1년 6개월에서 2년을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서 참고로 하였다. 또한 이들 시어머니 모두는 손자녀가 있어 아들 내외가 가족주기과정 상의 초기단계는 모두 거쳤으므로 가족적응 과정이라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적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아들내외의 결혼기간과 결혼생활유지, 그리고 손자녀출산과 양육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편중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과정 경험을 보고자함하므로 거주지역이라는 일반적 특성은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한편 이들 시어머니들의 거주지역이 충청도지역으로 대화내용의 사투리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시어머니	결혼 년도	손자녀 수	며느리		아들		
			출신국	연령	연령	학력	직업
참여자 1	2007.5	1	베트남	24	42	고졸	회사원
참여자 2	2007.9	2	중국 (한족)	28	45	고졸	회사원
참여자 3	2008.5	1	베트남	26	45	중졸	회사원
참여자 4	2007.4	1	베트남	23	40	고졸	회사원
참여자 5	2006.12	1	베트남	27	30	전문대 중퇴	농업

3. 자료수집방법과 과정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시어머니들과의 면담 이전에 센터장과 직원을 각각 두 차례씩 만나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다.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연구 동의서를 교환하였고,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 연구목적, 면접내용에 대한 활용, 비밀보장, 녹음에 대한 허락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접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개별 면접이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녹취된 면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공지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직후 필드노트(field note)에 면접과정에서 떠올랐던 주요 아이디어와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점검하거나 주요한 추가질문사항들을 다음 면접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뷰 초기에는 특별한 질문 없이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들으며 자연스럽게 연구주제로 이동하였다.

연구대상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 개방형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주요 질문은 ‘아들의 국제결혼 과정은 어떠한가?’, ‘아들의 결혼 후 며느리와의 가족생활은 어떠한가?’, ‘며느리와 가족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이다. 면접내용을 모두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 녹음을 하였다. 면접은 시어머니들의 집에서 총 2회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자의 집에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상호작용도 관찰하며 자연스러운 가족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면접은 현상학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과 박사과정생인 연구보조원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직접 녹취하였고 녹취내용을 서로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4. 자료분석과정

Colaizzi[34]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한 절차에 따라 첫째, 녹음한 면접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대상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았으며, 셋째,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대상들의 언어로 소주제화 한 후, 넷째, 소주제들을 통하여 범주화 작업을 실시한다. 주제를 현상학적으로 구조적인 기술을 하였다[13].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과정 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과 연구보조원은 녹취한 원자료와 필사

자료를 비교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2차 면접이나 전화 통화로 재확인하였다.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여 문자화하고 진술을 반복하여 읽고 다음으로 본질을 찾고자 의미 있는 진술을 찾는 작업을 통해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소주제화 하여 범주화하는 단계를 총 5차례 거쳤다.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소주제화하여 최종 7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내용에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지 않는 상태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엄격성(rigor)을 평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37]가 제시한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33]. 사실적 가치, 즉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재를 잘 반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 시작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시어머니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고 본질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한 맥락적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그들의 가정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며느리인 결혼이민여성들과도 대화를 하거나 앨범 등을 보며 평소 사는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도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적용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질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를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여러 차례의 자문을 받고 협의하여 수정함으로써 어떤 연구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연구결과가 거의 동일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일관성을 충족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선이해, 편견, 가정 등을 갖지 않도록 연구의 시작에서 끝까지 노력하며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결혼이민여성을 며느리로 둔 시어머니들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원자료를 여러 차례 읽고 의미 있는 진술

을 추출하였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중복된 진술을 제외한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다. 재진술한 의미를 가지고 31개의 주제를 조직화하였으며, 7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이 7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시어머니들의 가족과정 경험은 상호연관되어 있어 아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때부터 아들내외의 결혼이후 가족으로 살아가는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기술하였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가 가족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감에 대한 원 자료를 연구자 2인이 여러 번 읽고 추출해낸 주제와 범주화는 [표 2]와 같다. 원 자료 진술에서 31개의 주제를 조직하였고, ‘아들결혼에 대한 부담감’, ‘마뜩잖은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서운한 며느리로 인한 부담감’, ‘걱정스러운 아들내외와 사는 부담감’, ‘외국인 며느리 맞기로 인한 부담감’, ‘딸에게 기대는 사돈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의 7개로 범주화되었다.

표 2.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부담감

범주화	주제
아들결혼에 대한 부담감	1) 내 자식이 부족함 "그냥은 깃을 리가 없지. 그냥은 갈 리가 없을 것 같아"
	2) 부모노릇을 못해 미안함 "부모가 모자라는 부모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게 그게 원망스럽지."
	3) 가족들이 국제결혼을 권유함 "다들 잘 산다고 그러더라."
	4) 국제결혼을 소개받음 "업소에서는 루트마다 다 매겨나서 가면 일사천리로 된대"
	5)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 "돈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에 1000만 원을 달려로 바꿔가지고 서류해가지고 간 거지."
	6) 잘 살았으면 좋겠음 "잘 살면 괜찮다고 이제 한이 없다고 그 소리를 다 했어."
마뜩잖은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7) 말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 "응, 그렇지. 서로 답답했지"
	8) 게으른 며느리 "뭘 시켜, 시키기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속 터져서 내가 해야지. 그래,."
	9) 고집 센 며느리 "고집이 있어서 지가 활려고 하는 건 해야 되요."
	10) 아껴 쓸 줄 모르는 며느리 "우선 주머니에 주는 게 좋은 거야."
	11) 몸이 약한 며느리 "울 애기가 몸이 약해요.. 무지하게 약해요"

서운한 며느리로 인한 부담감	12) 지박에 모르는 며느리 "잘났든 못났든 지 남편인데 밥이라도 챙겨주고 그러면 좋는데..."
	13) 둘째를 안 가지려함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어, 왜 안난대..."
	14) 며느리 눈치가 보임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 할 말이 많잖아~"
	15) 돈을 벌려고 함 "난 집에 있을수록 좋는데 지가 나가서 번다면 나가야지"
	16) 돈 때문에 한국에 온 것 같음 "돈 때문에 보낸 것 같어..."
	17) 내가 참는 것이 편함 "내가 참으면 다 편한걸,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나만 참으면 편한걸..."
	걱정스러운 아들내외와 사는 부담감
19) 내가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 "내가 지 좋아"	
20) 부부싸움 모르는 척해주기 (아들에게) "잘해라. 성질대로 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	
외국인 며느리 맞이로 인한 부담감	21) 도망갈까 바램날까 걱정함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하나 싶고 그게 걱정이다라고."
	22) 남들의 시선 "남들은 흥 볼 테지, 한국 며느리 못 얻고 외국며느리 얻었다고..."
	23) 가족이 모두 며느리 눈치를 봄. "우리 애들도 자들이 속으로 속앓이 할 때가 있어도 뭐라고 안하고 그냥 말더러고..."
딸에게 기대는 사돈에 대한 부담감	24) 처가에 돈을 보내야함 "지집 돈 쓸 일이 있다 하면은 꼭 애(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모양이야."
	25) 돈이 많이 드는 처가 방문 "갈라면 빈손으로 가?"
	26) 사돈을 한국에 초대함 "자기들도 와서 보니까 딸 잘 사는 거 보니까 흐뭇한거야~"
미래에 대한 부담감	27) 손자보는 재미 "우리 손자가 더 잘하.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28) 잘하는 며느리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하지"
	29) 결혼을 잘 시킨 것 같음 "이렇게 어려운 집에 와서 살림 잘하고 아들 둘 낳고, 만족하죠 뭐"
	30) 한국 며느리 외국 며느리가 똑같음 "한국며느리 열 부럽지 않아요, 뭐든 잘하니깐 착하고 잘하니까."
	31) 잘살기를 바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지..."

1. 아들결혼에 대한 부담감

시어머니들은 늦도록 장가를 보내지 못해 아들들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노릇을 못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부족한 자식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다.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과 부족한 점들이 자신이 어리숙하고 못난 탓이고 더 똑똑하고 배운 부모였더라면 아들의 인생이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자책하였다. 주변 가족들이 국제결혼을 권유하여 어렵게 국제결혼을 결정하였고, 참여자 모두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아들을 국제결혼 시켰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여년을 망설인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결혼정보업체에 내는 비용과 그 외 여성을 데리고 올 때 경비도 따로 지출하는 등 국제결혼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는 장가를 못 보내 걱정하였고 한편으로는 장가를 가더라도 참한 아가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 과정에서 아들의 결혼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동시에 '잘 살았으면 좋겠음'의 부담감들을 경험하였다.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서 입천장이 고랑이지고 여기가 짜게지고, 장애가 있어서 항상.... 이젠 서른 살이 되다보니깐 한국 사람들과고는 연애를 못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 하려니 마음 못 먹었지."(참여자 4)

"근데 첫째는 내 자식이 부족해서 지 마음을 못 채워 주니까 내 마음이... 내 자식 잘못든 게 자꾸 속상한 거야."(참여자 5)

"자식을 그렇게 둔 죄로 자식한테 지 팔자지만 더 똑똑한 부모 만났으면 그 지경까지 안 갔는데.... 답답한 엄마를 만나서... 아버지는 원래 자식들한테 일체 신경을 안 쓰니깐. 밖으로만 도니깐."(참여자 4)

"그래서 3년을 끌다 보니깐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우리집에 왔더라구. 베트남 아가씨가 잘 산다구. 내가 2번을 보고도 대답을 안했어. 아들이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는데, 아들이 보고선 일요일날 와서 애

기 들어보더니 결혼한다고 백만원을 계약금을 치렀다 그러더라구.”(참여자 4)

“중신애비가 처음에 데리고 가서 이 여자다 보여 주면은, 거기서 지털 둘이 마음이 있으면은 하고서 온다대.”(참여자 3)

“천만원 들었어(올 때). (무슨 비용인지는)모르지. 그게 뭐하는지 모르고, 중신애비가 그걸 주면은 자기가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2번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가 가서 쓰고 싶은 거는 별도로 다 자기가 그 돈으로 한다고.”(참여자 3)

“깔끔하고, 이쁘고, 난 항상 그걸 걱정했거든. 아들한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걱정했는데..”(참여자 2)

“외국 며느리면 어떻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열심히만 살면... 잘 살면 괜찮다고 이제 한이 없다고 그 소리를 다 했어.”(참여자 4)

“거기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게비다 그렇게 하고서... 에휴....”(참여자 1)

2. 마뜩찮은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타국에서 들어온 며느리와 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들로 많은 부담감을 겪었다. 국가 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족으로 적응하는 과정은 서로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그 적응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우선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오해가 생겨 일어나는 갈등을 경험하였다. 시어머니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들이 있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었다고 표현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문화차이로 인한 것도 있고, 여느 고부간에도 있는 문제들인 것으로 보인다. 시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부지런하고 씩씩한 며느리를 선호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며느리들은 청소를 안 하려고 하고, 시키는 일은 한 것도 시어머니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집안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며느리는 아예 농사일은 못한다고 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으며 외부활동에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들이 경험한 며느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다. ‘조금 원만한 거 넘어가, ... (중략)... 일거리 만들면 뭐해요?’ 라는 말에서 볼 때, 시어머니의 생각은 옛날 방식이고 며느리의 생각이 요즘 방식이라고 받아들이며 며느리의 생각을 따라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손자 옷을 자주 여러 벌을 사고, 먹고 싶은 것들은 바로 사먹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시어머니들은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 썼으면 하고 며느리에게 바란다. 아들의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좀 더 아껴 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를 보태 주고 있는 시어머니들도 있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몸은 약하고 집에서 살림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그때는 처음 그런 거 겪고 나니깐 너무 처음이라 황당하더라고. 지 생각에는 내가 무섭게 보였는지 무섭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충격을 내가 많이... 황당했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우는 거여”(참여자 4)

“거기는 청소도 안 하니깐 깨끗하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먼지 속에 그러고 있어.”(참여자 5)

“아휴~. 뭘 같이 하자고 하. 하나 씻고 저기 가서 앉아있고, 하나 뭐 시키면 저기 가서 있고.. 할려고 들들 않냐.”(참여자 1)

“고집이 지가 센데 내가 세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한테 지지. 고집이 세요. 다른 집 가봐 더 대단하~”(참여자 2)

“돈도 못 모아~ 먹고 사느라 바빠서 돈 모을 새가 없지. 못 모으지”(참여자 2)

“한 가지 좀 절약하고 쓰고 살림 조금 알뜰하게 하면 하나도 나무랄게 없어. 글썽. 아껴 쓰고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지. 아껴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어.”(참여자 3)

“우선 재들은 손에 현찰을 쥐는 걸을 좋아해. 당장 쓰는 거.”(참여자 5)

“울 애기가 몸이 약해요 무지하게 약해요 엄청 약해요 그래서 어디 땀기다니까 걱정이요... 몸이 약해서..... 튼튼해야 되는데.”(참여자 2)

3. 서운한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아들이 나이가 많아도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마냥 어린 자식으로 여겨진다. 아들도 장가를 들어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는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어머니들은 항상 아들이 걱정스러운 것 같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이 혹여나 아들 가정에 불화가 될까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가족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고 함께 먹고 싶고, 힘든 일은 덜어주고 기쁜 일은 함께 알고 기뻐하는 것인데, 참여자들이 불 때 며느리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해먹고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였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주를 더 낳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며느리들은 아기를 하나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한다. 시어머니들은 아들내외와 함께 살면서 내집이지만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들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반면 시어머니들은 모두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며느리들의 직장생활을 못 하게 했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아 며느리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며느리들이 친정에 돈을 보내야하고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며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다. 장가 간 아들이 혼자 속옷을 빨고 있거나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로서 할 말이 많았지만 가족이 편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참게 만들었다.

“가만~히 보면, 그저 저배끼 몰러~ 해먹는 것도 그

렇고, 저 먹고 싶은 것만 사다가 해먹고...”(참여자 1)
 “바지가 뜯어져서 지가 꿰매고 있고, 지 팬티도 지가 쪼그리고 앉아 빨고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 속이 터지지 울화통이 터지지. 남들한테 얘기 못하고 속앓이 하는 거야”(참여자 5)

“둘째는 안 난다고 하는데 뭐 며느리가 안 난다고.. 아들은 하나 더 낳고 싶어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침엔 둘 난다고 하더니... 하나 낳더니 맘이 변했어.”(참여자 4)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어렵겠지만 음식을 해놓거나 사다놓으면 내가 혼자 꺼내먹기가 좀 그렇잖아. 며느리가 있으니까 맘대로 뒤져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나머지하고 가져다가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참여자 2)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집에 있는 게 더 좋지.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 그 돈을 다 대줘야하는데 돈이 없잖아.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개들이 일하는 거니까 가서 하는 거지... 남의 일 하는 데는 안 보내.”(참여자 3)

“내가 참으면 다 편한걸,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나만 참으면 편한걸.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하는데... 그래서 딸, 아들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참여자 4)

“내 식구로 맨들라니까, 내가 쓰다듬고, 거 하지 뭐. 에휴~ 가르치면 뭘하. 대답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속만 썩는 것이지.”(참여자 1)

“다만 보면은 한국은 살기 좋고 자기네는 살기 어렵고 그래서 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좋은 나라니까 와서 잘 쓰고 잘 먹고 편하게 살라고 온 거 같어.”(참여자 3)

4. 걱정스러운 아들내외와 사는 부담감

시어머니들은 아들 부부와 살면서 ‘능력 없는 내 아들’, ‘내가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 ‘부부싸움 모르는 척 해주기’의 부담감들을 경험한다. 항상 어머니는 아들의 별이가 적어 걱정이고, 살림을 내어주고 싶어도 아들의 능력이 부족해 걱정하고 있었다.

아들은 한달 월급으로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기도 바

빠 어머니를 도와줄 경제적 여력이 없다. 오히려 어머니가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아들가족을 도와주고 있었다. 아들내외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도 직장생활을 할 경우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맡아하고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로 외부활동으로 거의 매일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살림과 손주 돌봄을 맡아주고 있었다. 산후 조리도 시어머니의 몫이었으므로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들은 모두들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살다보면 부부끼리 다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부부처럼 아들내외 방에서도 이유는 모르지만 다툼소리가 들려온다. 아들내외가 한 밤중에 싸우는 소리에 화가 날 법도 한데 시어머니들은 모른척하고 잔다고 한다. 시어머니들은 아들내외와 함께 살면서 부부싸움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주로 아들을 나무라고 있었다.

“애들하고 먹고 사느라 겨우 먹고 사는 거. 돈도 못 모으고. 전기회사 망겨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참여자 2)

“저 차상하고 아들래미 뭐 사다달라는 것 우유, 기저귀 사오랴 그거 사기도 바쁘지. 모자라. 모자르다~ 통장에 돈 떨어져서 내가 넣어줬다니까.”(참여자 3)

“아들이 그러더라구. 내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능력되면 나가라는 거지 ‘나 안 데리고 있는다 안 붙들게. 능력되면 나가~ 안 붙들게’.”(참여자 4)

“내가 지가 원하는 대로 안할 때는 안하는구나.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싸가지 없다고 하고 말았어.”(참여자 5)

“내가 다 하지. 승질이 급하고 난, 그런 것 속 터져서 못 봐. 하는 것 그렇게 저렇게 하고 끄지력 거리고 하근.. 어휴, 눈을 보면 치우지, 내가 눈을 보면 치우는 거지 내가..”(참여자 1)

“안 산다고 가면 ‘나 얘기 못 키운다, 못 키운다’, 했더니 내비 두는 거야. 시끄러우면 내가 이불 쓰고 자.”(참여자 5)

“아들보고, ‘잘해라. 성질대로 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 지들끼리 좋은척하고 내색 안 하길래 좋게 지내 길래 모른척하는 거지..”(참여자 4)

5. 외국인 며느리 맞기로 인한 부담감

시어머니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며느리가 혹시나 ‘도망갈까, 집나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인 며느리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도 되는 반면 아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으면서 시어머니들은 ‘도망갈까 바람날까 걱정’, ‘남들의 시선’, ‘가족이 모두 며느리 눈치를 봄’의 부담감을 경험한다.

참여자들 중에 아들내외의 가장 짧은 결혼기간은 2년이었고, 그 외 참여자들은 그 이상의 기간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모두 자녀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맘이 변해 가정을 떠나진 않을까 여전히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며느리가 예쁘고 잘한다고 응답하면서도 시어머니들은 자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우려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시댁 가족들은 모두 외국인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제대로 치우지 않거나 부엌살림살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리고 남편이나 시댁가족들에게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참고 지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전화를 하면 오래하고 그게 좀 걱정스러워. 우리가 베트남 말도 못하니까. 작은 딸은 ‘잘 살아야 하는데 맘이 금방 변해서 걱정이라’. 맘이 진중하지 않고 저렇게 금방 변해서 걱정이라 저게 언제까지 살건지 걱정이야”(참여자 5)

“와서 살다가 주민등록 나오면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항상 걱정이지요. 마음이 바뀌어서 항상 나갈까 걱정이지요.”(참여자 4)

“내 걱정은 그계 걱정이고 한 가지 걱정은 그계 걱정이요 제일 걱정은 그거요.. 아이들 떼놓고 가면 어찌나... 제일 걱정은 그거요 수틀리면 간다고 할까...... 아직은 맘을 그 맘을 못 놔.”(참여자 2)

“남들은 흥 불 테지 한국 며느리 못 얻고 외국며느리 얻었다고. 흥보거나 나는 외국며느리 들어서 잘 사니까.”(참여자 3)

“남들이 보기에도 행복하게 사는 걸로 보이니까 저런 며느리 얻으면 걱정 없겠다고 남들도 그러고.. 외국 며느리라도 얻었으니까 밥이래도 편하게 얻어먹지. 한국인 며느리 같으면 이렇게 얻어먹고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맘이 편해.”(참여자 4)

“안 살겠다고 하면, 빌일 있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재가 어리숙하면 내 맘이 우리 가족들과 더 편할 거 같아.”(참여자 5)

“어떡하, 그런디서 얻어갖고 왔으니..... 아휴. 답답하지 뭐. 말도 못하고 이런 말도 못하고, 저렇게 사니까”(참여자 1)

“딸들도 오면 잘해요. 다들 잘해요 그럼 얘기도 좋다고 하고 다 잘해요. 화목하게 잘 지내요.”(참여자 2)

6. 딸에게 기대는 사돈에 대한 부담감

명절 때나 며느리 친정에 일이 있을 때 봉투를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아들이 처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시어머니들은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오므로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돈의 건강문제나 오토바이사고, 사돈집의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고, 시어머니와 아들은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사돈집을 방문하거나 예정인 경우에도 외국인 사돈인데다가 사돈집의 기대가 있으므로 더욱 신경이 쓰였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돈집 가족들이 한국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한국에 온 사돈들은 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난 경우도 있고, 한국을 방문한 후 이주를 온 사돈도 있었다. 며느리의 형제들을 초청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경비를 부담하거나 다양한 도움을 주며 많은 부담감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일 년 더 있다 주나, 지금 주나 우리 형편에 돈 천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 남도 없으면 도와주는데 손자 낳았잖아. 저도 맘 편하게 살게 주자.

그랬지. 거기는 하나만 한국에 시집보내면 생활이 피는 거. 우리는 다달이는 안보내도 한 뭇에 줬잖아.”(참여자 5)

“한 가지. 뭐냐면 뭐 지집 돈 쓸 일이 있다 하면은 꼭 애(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모양이야.”(참여자 3)

“지가 바쁘지 친정 엄마 아버지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다녀야하고”(참여자 4)

“몰르게 보내지, 알게 보내겠어. 유별나게 얼~마나 전화질하는데. 그라니께는 돈 들어가는게.....”(참여자 1)

“거기서는 사돈네가 부자라고 소문은 떠들썩하고 다들 부러워한다는데 가면 냉장고 하나 사주고 와야지 그냥 올 수는 없잖아.”(참여자 5)

“냉장고 사거라’ 그러면서 내가 또 돈 줬지. 그랬더니 그 이튿날 사오더라고. 나 보는데 다 사오더라고 그리고...”(참여자 3)

“갈려면 빈손으로 가? 처갓집인데, 장인장모 있는데, 그냥 못가잖아. 뭐래도 해가지고 가야지.”(참여자 2)

“초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셔서 초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러서 초청을 해야 하잖아. 근데 이게(손으로 돈모양) 되야지. 아직 그렇게 못했어.”(참여자 2)

7. 미래에 대한 부담감

시어머니들은 늦도록 장가를 못가 걱정하던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들어 기뻐했다. 살림 잘 하고 손자까지 낳아준 며느리가 고맙고, 먼 타국까지 시집와 살아가는 며느리가 예쁘고 기특하다. 하지만 시어머니들은 고마운 마음과 며느리의 마음이 변할까하는 걱정이 시어머니들의 마음에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들은 모두들 손자녀들이 매우 똑똑하고, 며느리보다 한국말을 잘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며느리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주로 시어머니들이 집에서 손자녀들을 함께 돌봐주고 있었다. 처음 며느리를 맞이하고 음식,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서로 답답한 일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이 서로 적응을 해 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 주는 요리가 맛있다고 자랑하였

고, 살림도 잘아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들어와 손자도 생기고 어여쁜 손자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걱정도 했지만 결혼시키기를 잘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할 때, 아들이 부족하고 그 것이 자신의 탓으로 여겼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한국인 며느리와 외국인 며느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음을 경험하였다. 며느리가 한국에 시집와 잘 적응한 것을 경험한 시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내위를 잘 타이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딸들 속에서 시어머니들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내위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뚝뚝하긴 뚝뚝해~ 개(손자)가 다른 애들보다 뚝뚝하긴 뚝뚝해.”(참여자 5)

“기가 맥히게 잘해요. 말도 푹푹하게 잘하고 아주 잘 하죠.”(참여자 2)

“근데 우리 손자가 더 잘 하.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지엄마 오면 ‘할머니 싫어, 저리가’ 우리 손자가 더 잘 하겠어.”(참여자 3)

“조식 면한 건. 밥 해먹는 거 허리가 아퍼서.. 그거 한 가지 맡긴 게 제일 좋아요 아들 맡긴 거, 아들 맡기면 지가 신랑 비위맞춰서 조식 챙겨주니까 그게 너무나 무 좋더라고. 다 무에무덕하게 좋아요.”(참여자 2)

“머리가 좋아서 음식을 잘해. 교회 같은데서 먹으면서 봐 이렇게 보고 집에 와서 해봐.”(참여자 5)

“만족하죠. 만족하죠. 와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와서 살림 잘하고 아들 둘 낳고, 만족하죠 뭐.”(참여자 2)

“머든지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밥도 때 맞춰 지가 딱 딱해주고 하니깐 불만은 없어요.”(참여자 4)

“세월이 그렇지 한국이고 며느리고 다를 게 없어.”(참여자 3)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니까 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지금 애들은 더 잘 알아서 잘 하니깐 뭐 그럴 것도 없어요.”(참여자 2)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똑같아.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부모가 살으라고 사는 거 아니지.”(참여자 4)

“딸 하나 더 키운다고 하면 편하더라고. 그러니깐 세상사는 재미, 손자 재롱떠는 게 사는 재미... 며느리도 잘 하고 서로 위해서 잘하면 며느리도 잘하겠지.. 이해하고 마음도 편하고 편해요.”(참여자 4)

“우리 쪽에서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이 주여성들이 살러 오기가 나올 거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거고, 남들 보기에다 좋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지”(참여자 5)

V. 결론 및 논의

1.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가족적응 경험에서 나타난 부담감의 의미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며느리로 둔 시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들의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아 하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경험을 살펴보았다. 시어머니들이 느끼고 경험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 가족이 된지 2년 이상 된 시어머니 5명이었으며, 각자의 면접을 통해 31개의 주제를 조직화하였으며, 7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시어머니들은 가족적응과정에서 자녀와 가족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 걱정을 7개의 ‘부담감’으로 범주화하여 시어머니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시어머니들은 내 자식이 부족해 결혼을 늦게 한 것이며, 부모노릇을 제대로 해 주지 못했던 자신들을 탓했다. 시어머니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며 망설이고 있었으나 주변의 가족들이 국제결혼을 권유하였다. 며느리들도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이 국제결혼을 권하였다고 하였다[9].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한국에 오기까지 돈이 많이 들었고, 아들과 잘 살아가기를 가장 바란다고 하였다.

하지만 결혼을 시키고도 마뜩잖은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들은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외국인 며느리와 살

면서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생활에서는 겪지 못했던 낯선 며느리의 행동과 언어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일들도 많았다. 며느리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게으르고 고집 센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속상했다. 임사랑[26]의 연구결과에서도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게으르고 고집이 세다고 특징지었으며, 이러한 특징이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의 외모꾸미기에 관심이 많고 절약하는 습관도 없어 보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마땅치 않았다. 육아에서도 가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른 견해로 마음이 상한 적도 있었다. 손자녀 육아부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견해 차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다[10][12][24].

시어머니들은 서운한 며느리로 인한 부담감을 절실히 경험하였다. 문화차이일 수도 있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사다 먹고, 아들의 속옷을 빨아주지 않아 아들이 직접 속옷 빨래를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며느리들은 힘든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면서 들췌 갖기를 마다했다. 시어머니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도 며느리가 챙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며느리가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집안일이나 농사일은 못한다고 하면서, 직장을 나가고 싶어 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러 외부로 나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부 며느리들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였다. 시어머니들은 '내가 참으면 편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며느리와 고부갈등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희승[24]은 시부모가 외국인 며느리와 동거하는 경우 고부갈등, 스트레스 인식,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가 비동거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아들내외와 동거를 하고 있어서 고부간의 갈등과 스트레스인식과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의 가사역할수행을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며느리가 아들을 버리고 도망갈까 걱정하며 참고 살고 있었다.

참여자 중 3명의 시어머니는 아들내외에게 따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있었다. 아들내외도

분가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들의 별이가 넉넉하지 못해 분가해서 생활할 만큼 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살림과 손자녀 돌보기를 함께 하면서 농사일 등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들내외가 싸우면 모른척하거나 주로 아들에게 잘하라고 하며 며느리편을 들어준다.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고맙지만 시어머니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나쁜 소문들로 인해 며느리가 도망갈까 혹은 바람날까 의심초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시어머니들의 불안감을 보고하고 있다[26]. 또한 시어머니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것에 대해 남들이 흉볼까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시택식구들은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오히려 며느리에게 말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아들은 처가에 여러모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고, 시부모들도 사돈에게 경제적 도움을 간간히 주고 있어 참여자들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의 친정집에 방문을 가서도 또는 사돈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딸이 잘 살고 있으며 한국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아들의 급여로 친정에 돈을 보내어 생활비 지원을 하거나 며느리의 용돈과 생활비로 인해 고부갈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12][26]을 볼 때,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므로 보인다.

처음 외국인 며느리는 절대 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시어머니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우연히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 모두 외국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살겠다고 응답했다. 함께 살면서 서운한 일들도 많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손자들을 낳아주었고, 이제는 제법 시부모님을 봉양할 줄 아는 것 같아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 시어머니들은 한국인며느리와 외국인며느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다만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앞으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은 가족적응과정에서 ‘아들결혼에 대한 부담감’, ‘마뜩잖은 며느리에 대한 부담감’, ‘서운한 며느리로 인한 부담감’, ‘걱정스러운 아들내외와 사는 부담감’, ‘외국인 며느리 맞기로 인한 부담감’, ‘딸에게 기대는 사돈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러 부담감들을 경험하면서 시어머니들은 가족적응과정의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가족적응과정동안 내러움을 수 없는 부담감은 외국인 며느리가 아들, 손자와 끝까지 함께 살아줄 것 인지의 부담감이었다. 시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살림과 손자돌보기를 도와주며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불안감으로 인해 자유롭게 외국인 며느리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동시에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가족을 이루게 되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시키기를 잘 한 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 잘 살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들의 국제결혼을 통해 낯선 사회 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들이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가족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며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족복지실천에 제공해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외국인여성들의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기초적인 언어교육은 가장 필수적이다. 시댁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가족복지프로그램도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나라의 언어나 문화로 인한 생소함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사돈과의 관계에서도 문화차이와 불편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 다양한 가족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대로 다문화가족의 적응과정도 문화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족들과 다를 것 없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이라는 이분화된 접근이 아닌 일반적인 부부들과 자녀,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담이나 부모교육, 가족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부간의 의사소통향상이나 다문화가정 방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효과적인 것이다.

셋째, 시어머니들은 아들부부에 대해 결혼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늘 갖고 살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나 결혼실패 등의 부정적 내용을 위주로 부각하여 문제시하여 다루었던 결과이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도망갈까하는 불안감에서 ‘나만 참으면 가족 모두가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따로 구분하고 분리하기 보다는 일반적 접근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의 결혼과정에 함께 하지 못했던 점들도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더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결혼과정에서 양국 정부 차원의 신원보증 프로그램과 가족들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지원과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의 가족적응 과정경험의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가족복지 실천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비교적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역이나 계층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험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구성하여 양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두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거나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경우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은숙,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제18권, pp.123-134, 2009.
- [2]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3] <http://www.kosis.kr>.
- [4] 권진숙, 신혜령, 김정진, 김성경, 박지영,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8.
- [5] 김미옥,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호, pp.9-36, 2002.
- [6] 김영숙, 이근무, “다문화 가족 시부모들에 대한 연구-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접근”,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41-70, 2011.
- [7] 김오남,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3호, pp.63-106, 2006.
- [8] 남인숙, 안숙희,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99-108, 2011.
- [9] 박병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77-295, 2013.
- [10] 박진옥, *결혼이주여성가족의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적응과 갈등*, 영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 [11]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향*, 2005.
- [12] 성은영, 황순택,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스트레스 대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8권, 제1호, pp.243-256, 2013.
- [13] 신경림,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제12권, 제1호, pp.49-68, 2003.
- [14] 신동희, *다문화가족 시어머니의 외국인며느리와의 관계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과 석사학위논문, 2012.
- [15] 안준희, 조정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32호, pp.137-176, 2011.
- [16] 양다진, *성인지성의 조절효과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연구*,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17]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3호, 제4권, pp.433-451, 2008.
- [18]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제20권, 제2호, pp.191-232, 2010.
- [19]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부모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제32권, pp.103-135, 2010.
- [20] 이민영,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21] 이선애,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22] 이시연, 최윤정, 권현진,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포커스집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pp.319-346, 2006.
- [23] 이애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이해 및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서울지역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제4호, pp.299-321, 2010.
- [24] 이의승, *외국인 며느리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시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25] 이지영, 이미진,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부관계와 수발의식”, 한국노년복지학회, 제46권, pp.127-156, 2009.
- [26] 임사랑,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요인*

에 대한 연구-순천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7] 정순돌, 박현주, 오보람, “시부모와 외국인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일치정도에 근거한 관계유형”,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pp.133-153, 2010.

[28] 정순돌, 이현주,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8권, pp.5-36, 2010.

[29] 팽정옥, 박경란, “며느리가 지각하는 시어머니 부양스트레스와 고부관계의 질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제1권, pp.140-141, 2010.

[30]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95-219, 2006.

[31] 한진숙 편, *현상학*, 민음사, 1998.

[32] 허선, 김계하,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제22권, 제2호, pp.51-63, 2010.

[33]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08.

[34] 황정미,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제4호, pp.1-38, 2010.

[35]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36] J. Mancini and R. Blieszler,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p.275-290, 1989.

[37] Y. S. Lincoln and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 1985.

[38] D. H. Olson, Commentary: Three-dimensional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Vol.30, 1991.

[39]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Ontario: The Althouse Press, 1998.

[40]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질적연구방법론*, 학지사, 2005.

[41] 이형하,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269-277, 2013.

저 자 소 개

박 병 금(Byung-Kum Park)

정희원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06년 7월 ~ 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노 필 순(Pill-Soon Noh)

정희원



- 2005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정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사회복지조사론